

## 哲學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沈 在 龍

(서울대 哲學科)

### 1. 머리말

한국에서 哲學敎育이 대학 수준에서 시작된 지 거의 반세기를 지나고 있다. 요즘에 이르러서는 고등학교에서도 哲學을 인간 敎育의 필수로 인식하고 1주일에 2시간 정도의 철학교육을 시작하려는 추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敎育의 시발은 애당초 철학에서 시작하는 것임은 古今과 東西의 歷史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철학 敎育이 한 국가의 棟樑을 길러내는 大學敎育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국가의 棟樑이 반드시 지식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류의 지식과 지혜의 寶庫로서 과거의 전통을 傳授하며 나아가 앞으로 인류를 위한 지식과 지혜의 창조적 공장에 비견되는 대학에서의 敎育에 철학이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철학 및 그 敎育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들을 천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른바 ‘雜新’을 빌미로 언제부터인가 哲學敎育을 대학의 敎養과정 가운데 필수 과목으로부터 제외하고 소위 ‘國籍 있는 敎育’이라 하여 교편, 한국사 및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국민운리를 강요하게 되었다. 체제 옹호와 이데올로기의 교수라는 위로부터 강요된, 소위 국적 있는 敎

育은 역설적으로 온 국민으로 하여금 自律性을 잃고 꼭두각시 놀음을 하게 만들었다. 철학의 탈이데올로기적 정신과 批判的 創造精神이 말살되는 바람에 그렇게도 강조되어 오고 있는 문화 민족의 일은 황폐 일로를 치닫고 있다.

어려서부터 경쟁 일변도의 敎育과정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를 거쳐 大學 入試에 이르면 極致에 도달한다. 그 어려운 경쟁의 관문을 뚫고, 또는 눈치와 배짱으로 기를 쓰고 들어 온 대학도 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한 달이 못가서 들게 마련이다. 천편일률적인 注入式 敎授法에, 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道具科目의 나열에 尙傷한 대학 신입생들에게 지하로부터 들려오는 정답형의 이데올로기가 귀에 쏙 들어 올 것은 不問可知이다. 가뜩이나 불만 투성이의 이 나라의 정치 현실과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은 감수성과 비판력이 한창인 젊은 세대들에게 냉정한 철학적 사고를 통한 건설적 대안의 제시를 위한 고민과 학구적 窮理보다는 당장 그 불만의 대상을 파괴하려는 감정적 해결로 치닫게 한다. 이것이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데모가 끊이지 않는 대학의 현실이라는 해방 이후 40여년 동안의 大學史의 軌跡이다. 哲學이 없는 社會가 哲學이 없는 젊은이를 茁産한다. 여기에 다시금 역설적으로 대학에서의 철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케 되는 것

이다.

## 2. 現況 및 問題點

현재 한국에는 4년제 대학교 122 개교 가운데 44 개 대학교에 철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동양철학과, 인도철학과, 한국철학과 등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살린 명칭의 철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가 있는가 하면 종교철학과, 윤리학과, 윤리교육학과, 국민윤리학과, 국민윤리교육과, 불교학과, 신학과, 승가학과 등 학문 및 종교별 명칭을 달고서 철학과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교들도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교에서 哲學科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1926년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철학과와 開設로부터 시작된 韓國內 哲學科의 발전을 상고해 보기로 한다.

西歐의 수백 년 大學史에 비기면 겨우 80년 밖에 안 되는 역사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은 해방과 더불어 무분별하게 自由放任式으로 불어난 셈이니까 그 많은 대학의 역사는 고작해야 45년밖에 안 되는 셈이다. 한국인들의 傳統的 教育熱과 특히 1960년대 이후 현대화라는 국가적 목표 설정에 따른 고급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에서 장년의 나이에 이른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대학의 발전 사상 유례가 없는 量的인 增加를 계속하고 있다.

1940년 이전에 철학과를 설치한 大學校가 1개뿐이었으나, 1940년대에 3개교(+2), '50년대에 16개교(+13), '60년대에 21개교(+5), '70년대에 27개교(+6), '80년대에 44개교(+17)가 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50년대는 해방 이후의 체제 미정립기에 무분별하게 불어난 대학의 증설 붐을 타고 철학과도 10여개로 늘었고, 또 한번은 1980년대의 교육 개혁이라는 미증유의 조치로 무려 17개교가 늘어나 소위 綜合大學校로 승격된 대학에는 대부분 철학과가 설치되어 도합 43개의 철학과(동양철학과, 인도철학과, 한국철학과 등을 포함)에서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다가 1990년에 종교철학과 신입생 40명

을 뽑는 감리교신학대학까지 합치면 도합 44개의 이름을 달리하는 4년제 대학(이 경우 신학대학을 포함)에서 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구나 인도철학 1개 학과, 한국철학 1개 학과, 그리고 위에 합산된 동양철학과 3개 학과를 고려하면 모두 50개 학과에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학 학부과정의 철학을 연구 및 교수하고 있는 셈이다. 1984년에 실시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34개 철학과는 단 5년 동안에 거의 1.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계 대학의 역사에서 단 10년 동안에 26만 명의 대학생 인구가 126만 명으로 꼭 1백만 명이 증가한 것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자랑하기 전에 그 후유증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哲學科의 教育與件이 그러한 量的 增加와는 반비례하여 質的으로 劣惡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哲學도 소수 정예 위주의 소위 엘리트의 전유물 또는 신사도의 핵심이라는 귀족적 취향을 벗어나 학자나 교수의 양성보다는 一般大衆에게 올바른 世界觀과 價値觀을 심어주는 機能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천편일률적으로 상아탑 시대의 철학교육, 즉 학자 양성 내지 전문가 양성만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철학과와 증가에 따른 專任教授는 거의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84년 현재 34개 철학과와 전임 교수는 203명이었는데, '89년 현재 겨우 268명으로 1.3배밖에 늘지 않았다. 다만 '84년부터는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느라 입학생은 졸업 정원(1,365)의 30%(1,786명)까지 더 뽑는 바람에 한 교수가 맡는 산술평균적 학생 수는 35명씩이었다. 이는 비슷한 어문계열의 평균 담당 학생 수 22.6명에 비해 무려 13.4명을 더 맡는 폭이었다(물론 한국 대학 전체 교수의 학생 담당 평균 수인 41.1명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철학교육에 있어서 토론과 논문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수 수의 절대 부족이다).

'89년 이래 졸업정원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약간 줄어들어 25.46명이 되었다. 숫자가 줄었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최근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원 석·박사 학생을 따로 담당하는 교수는 정원조차 책정되지 않은 채 대학마다 '6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박사 量産體制에 돌입한 감이 있다. 교수들은 더 늘지 않은 채 석·박사를 양산하면 결국 학부 과정의 교육이 소홀해짐과 더불어 그렇게 양산한 석·박사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교수들이 대학원 교육에 時間과 努力을 들이는 만큼 학부 과정에 투입하는 人的·時間的 노력은 줄어든다.

더우기 '89년 이래로 철학 교수의 증원을 막는 묘한 제도적 족쇄가 채워진다. '89년 현재 고등학교 철학 교사 양성을 목표로 29개 대학의 哲學科에 敎職科目的 설치를 인가할 때에 문교부는 철학과의 교수 정원을 무슨 근거에서였는지 6명으로 한정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혹시 철학과는 교수 6명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틀로 고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우리는 각 대학마다 特性化를 제안함과 동시에 전체 학생 수에 따른 伸縮的인 철학 敎授定員 제도의 도입을 극력 제안한다.

### 3. 국내·외 大學의 敎科課程 比較 및 綜合的 論議

① 철학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哲學의 包括性과 學問性 그리고(인간 개개인 모두에 관련된다는) 的 中性 내지는 該當性을 든다. 철학적인 주제의 태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란 없다. 學問을 거론하며 철학을 간과할 수 없으며, 人間의 삶을 얘기할 때 철학과 무관한 것이란 없다. 이렇게 哲學 講義의 주제는 그 한계를 그을 수가 없다 하겠다. 그러기에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개설되는 강좌를 보면 우리는 우선 단적으로 그 양에 있어 압도를 당하고 만다. 우리 대학에서 지난 4년간 고작 40개 안팎의 선택 과목을 개설했을 뿐인데, 외국에서는 한 학기에만도 그 이상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② 基礎學問으로서의 哲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에 걸맞는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敎養과 專

修課程 모두에 철학의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③ 다른 학과와 連繫된 學士運營을 배워야 한다. 부전공 제도와 복수 전공 제도를 도입하여 인문·사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철학적인 바탕 위에서 폭 넓고 탄탄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철학은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방법론적인 차원의 기본적 토대를 예비시켜 준다. 論理的·批判的으로 思惟하도록 이끌며 자신의 주장이나 이론에 대해 根據를 提示하여 論證하도록 만들며 合理的인 合意點과 歸結點을 찾도록 안내해 준다.

④ 교과과정에 대한 폭 넓은 自律性과 그에 따른 敎科內容의 多樣性을 지적할 수 있다. 교수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 분야와 흥미에 맞추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⑤ 探究와 敎授의 전형적인 아카데미의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다. 완벽할 정도로 모든 전문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도서 시설, 1주일에 8시간 정도의 강의 부담, 전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몰두해 研究 主題를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과 더불어 討議하고 論爭하여 整理해 가는 研究風土 등을 우리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⑥ 生活과 관련된 哲學的 問題와 主題를 강의와 세미나에 끌어들이어 활기 넘치는 강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교수·학습의 모를 살려야 한다.

⑦ 研究助教 制度가 자리잡혀 있어 교수·학생 상호 간에 學問的인 往來와 共同作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敎授를 중심으로 特定한 學術的인 強調點이 두드러지는 學派가 조성될 수 있다.

⑧ 相互分科的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른 학문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상호 공동 작업을 꾀하며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필요한 情報를 交換하여 서로의 學問的 發展에 기여한다.

⑨ 메 6년제에 安息年 制度를 실시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구를 정리·종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 외에도 研究敎授制度가 있어 강의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하고 연구한 것을 책으로 출간하여 학술 진흥에 기여한다.

#### 4. 哲學科 敎育프로그램의 改善方向

##### 1) 새로운 哲學科 敎育프로그램 模型開發의 必要性

왜 새로운 敎育 프로그램이 요청되는가? 그것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敎育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도 아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더 이상 덮어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哲學敎育은 虛構的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의 국내 대학 敎科課程 現況 分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일류 대학의 敎育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더 강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서울대 철학과의 敎育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學者 養成'을 위한 것이며, 또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자의 길을 간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경우는 어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전공을 살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매년 철학과를 졸업하는 약 1,500여명의 哲學徒들이 모두 大學敎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적어도 敎育 프로그램에 관한 學者 養成을 꾀하고 있다. 이 얼마나 虛構的인 敎育이란 말인가? 물론 이러한 현상은 철학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학과들이 이와 유사한 敎育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탄할 일이지만,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은 1차적으로 좋지 않은 敎育 제도과 그에 부수적인 열악한 敎育 여건의 피해자들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등학교 敎育은 일류대학(그것도 입학 시험을 목표로 한) 지향적이다.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도 일류대학 입학생들의 들러리 역할(낙방도 역할은 역할이다)을 하다가 이류, 삼류대학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大學敎育마저도 그들을 다시 한

번 被害者로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결코 학자가 될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게 일류 학교의 흉내를 내어 學者敎育을 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敎育 프로그램이 요청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의 講壇敎育이 가지고 있는 虛構性을 과감하게 적절하고, 학생들이 가진 서로 다른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實質的 敎育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나쁜 敎育 제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 타인의 들러리가 아닌 그들 자신의 主體的 삶을 스스로 開拓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2) 哲學科 敎育의 方向과 目標

강단 철학의 허구성 극복은 形式的인 면과 內容的인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大學敎育의 方向에 대한 一大 轉換을 전제로 하여 대학에서의 哲學敎育 體系를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철학敎育 체계에 맞는 敎育 目標을 설정하고 敎科課程을 開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哲學科 敎育의 方向과 目標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 (1) 哲學敎育의 方向: 哲學敎育 體系의 革新

###### ① 哲學 專門家 敎育

대부분의 학교는 哲學 專門家 養成을 목표로 하는 敎育과정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철학은 고도의 추상적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철학자는 깊은 思考力과 言語 驅使力을 가져야 한다. 수학 및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들의 기본 전제들의 정당성을 탐구하기 때문에 철학자는 또 그러한 학문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할 수 있는 包括的 學問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에 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철학 전문가 敎育을 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철학 전문가가 될 계획이 없거나, 그럴 능력에 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哲學的 生活人 敎育을 提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哲學的 生活人 敎育(哲學 副專攻制度의 導入)

대부분의 대학은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 함이 바람직하다. 전국 44 개 철학과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받았을 경우에 가장 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대학들은 철학과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副專攻을 택하도록 제도를 바꾸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모든 학과에 이부전공 제도를 도입토록 함이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한다. 부전공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의 教育的 惠澤을 받을 수 있다.

첫째, 철학과 출신을 굳이 선호하는 풍토가 아닌 현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공부하여 社會 進出의 基盤을 다질 수 있다.

둘째, 철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한 학생들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과목만을 전공으로 택한 학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철학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철학을 전공함으로써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과목만을 전공으로 택하여 공부한 학생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成熟度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환영받고 개인적으로는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哲學 副專攻者 教育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은 물론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종교학, 신학, 문학, 신문학, 언어학, 의학, 뇌과학, 인공지능학,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의 존재 원리를 탐구하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많은 분야의 학생들은 哲學을 副專攻함으로써 자신의 분야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철학을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철학을 부전공으로 택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위의 '哲學의 生活人 教育'의 정신

에 입각하면 될 것이다.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학점 부담이 적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필수에 관한 한 적어도 철학적 생활인 교육의 그것에 비금가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 ④ 教養哲學教育

한 대학의 철학과는 철학 전공자들이나 부전공자들만을 위한 학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학생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으며, 철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철학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教養哲學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2) 哲學教育의 目標

현대는 어느 때보다도 哲學의 役割이 크게 기대되는 시대이다. 실제로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거나 할 것 없이 철학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술과 문학의 발전에 유용하며(철학과 학생 95.5%, 일반 학과 학생 93.6%가 그렇게 생각한다), 제반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97%, 95.8%), 사회 안정을 위한 이념의 발전(79.5%, 76.1%), 사회 개혁 혹은 이상 사회의 건설(89.6%, 83%),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구성 또는 자주적 통일(84%, 74.5%)에 철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의 함양(97%, 97.3%), 전체적 조망 능력의 함양(95.5%, 93.1%),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의 함양(90%, 92.6%), 인류의 지혜 인식(89.5%, 80.4%)을 위해 철학이 절대로 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철학이 위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알 수 있다. 특히 對社會의인 면에서는 철학이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전혀 못한다는 견해가 75%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히 한국에서 철학자가 하는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92%, 83%), 한국에서 철학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97.5%, 94.7%)하고 있는 것이다.

哲學에 대한 위와 같은 相反된 期待와 批判은 철학의 特性으로 보아 當然한 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서는 철학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념, 원칙 내지 규범 등이 모두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장 확고하다고 믿고 있는 과학적 '진리'마저도 가설적이라는 것이 상식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안을 발견했던 신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이념, 원칙, 규범, 진리관, 종교관에 대한 요청이 비등하고, 이 요청에 철학이 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哲學科는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哲學敎育의 目標을 설정하고 敎科課程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어느 방향의 철학교육도 이 목표를 指向해야 할 것이다.

(1) 論理的·批判的·合理的·科學的·  
主體的 思考 能力의 涵養

現代社會는 그 어느 때보다도 民主化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主體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 주체로서 인정받고 싶은 정도로 타인도 주체임을 인정하는 共存意識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배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옳고, 피지배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판정은 지배자나, 권력자나, 교황이나, 총을 가진 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또한 주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葛藤을 解消시킬 수 있는 能力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科學文明에 적응할 수 있는 科學的 思考力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과학 문명의 弊害를 最小化할 수 있는 合理的 思考力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全體的·包括的·鳥瞰的 知識體系 確立

어느 정도의 知的 能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 전체의 틀 속에서 분명한 位置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또는 그렇게 희망하고) 그 座標에 대하여 알고 싶어한

다.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 전체의 존재와 운행 속에서 어떤 분명한 位置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虛無主義와 無政府主義의 희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희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哲學敎育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自然 가운데서 사람이 접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하여서, 그리고 自然的 現象과 人爲的 現象을 지배하는 法則 또는 原則(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에 대하여 전체적·포괄적·조감적 지식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價値觀의 定立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포괄적·조감적 지식 체계가 확립되면, 그 체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일이 바람직하고 어떤 일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어떤 삶이 뜻 있고 어떤 삶이 뜻이 없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전체적·포괄적·조감적 지식 체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그러한 체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어떤 종류의 價値 判斷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는 기존의 가치관이 대부분 붕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價値觀의 定立이 절실히 요망된다. 올바른 사회관·역사관·국가관에 대한 요구가 젊은 세대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적절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서 講壇 哲學에 대한 不信이 생겨나고, '地下' 哲學이 젊은이들의 知性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4) 哲學的 創造力과 應用力의 開發

위의 세 가지로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哲學敎育이 指向해야 할 바를 일단 모두 다 學論하였다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철학이 문학, 예술, 종교, 언론, 출판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치계 심지어는 기업계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哲學이 어떻게 寄與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과서적 교육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哲學的 創造力과 應用力을 開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목표의 설정으로 哲學科 출신의 就業 가능성을 높여 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철학을 부전공한 일반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質的으로 더욱 바람직한 寄與를 하는 附隨的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3) 哲學科 教育課程의 編成과 運營

앞에 제시된 철학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哲學科 학생들을 위한 教育課程을 적어도 專門家 養成 프로그램과 哲學的 生活人을 위한 프로그램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한다.

#### (1) 哲學 專門家 養成을 위한 教育課程 (西洋哲學 專攻)

철학함을 필생의 업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적어도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논리의 기반이 확고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2학기 동안 필히 論理的 思考訓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세의 論理學은 실제적 상황 속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批判的 思考'라는 이름으로 개설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專攻必須였던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을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가치론으로 대치하고, 그 내용도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수정·보완한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哲學思想들의 흐름을 알게 하기 위하여 哲學史를 필수로 개설하되, 서양 고대·중세철학, 서양근세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의 네 분야로 나누어 4학기 동안 끝내도록 한다. 중국철학사와 한국철학사도 필수로 지정하여 모두 수강하도록 한다.

필수 과목은 36학점으로 제한하고, 3학년 1학기에 모두 마치도록 운영한다. 專攻選擇에서 36학점을 더 수강토록 하여 적어도 72학점을 수강하도록 한다. 그리고 卒業論文은 별도의 학점 배당을 하지 않는다.

선택 과목은 다양하게 제공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 과목은 2년을 주기로 개설하여 여러 과목을 고르게 개설하면서도 가능한 한 모

〈표 1〉 철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서양철학 전공)

학년	학점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1학기	2학기
1	3	전공필수	철학 입문	철학 방법론 서양고대·중세철학, 동양철학사
	"	"	비판적 사고	
	"	"		
	"	"		
2	3	전공필수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현대유럽철학
	"	"	서양근세철학	
	"	"	한국철학사	
	"	"		
3	3	전공필수	현대 영미철학	
	"	"	철학적 가치관	
4	0	전공필수	준업논문	준업논문
	0	"		

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운영한다.

선택 과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중급논리학, 논리철학, 수리철학(수학철학), 인식론, 경험론과 합리론, 실용주의, 과학철학, 언어철학, 심리철학(마음의 철학), 자유의지와 결정론, 형이상학, 유물론, 변증법, 독일 관념론,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실존철학, 윤리학, 기업윤리, 생의 윤리, 환경윤리, 행위이론, 종교철학, 미학, 법철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철학적 인간학;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 흄의 철학, 칸트의 철학, 헤겔의 철학, 맑스-엔겔스의 철학, 맑스-레닌의 철학, 하이데거의 철학,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주제사상, 사회사상사;

현대철학특강(X), 철학원서강독(X);

인도철학사, 한국유가철학, 중국유가철학, 한국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 노장철학, 도가철학, 비교철학;

교육철학, 철학 교육론, 철학교재 연구 및 지도법, 어린이 철학;

자연과 인간, 문학과 철학, 예술과 철학, 문화와 철학, 과학과 형이상학, 언론과 철학, 정치와 철학, 현대사회와 철학, 변혁과 철학, 실천과 철학.

(2) 哲學 專門家 養成을 위한 敎育課程  
(東洋哲學 專攻)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 철학의 특수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東洋哲學을 전공으로 하는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동양철학이란 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일본철학 및 이슬람철학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리고 한국 철학 연구에 필수적인 한국의 고전적 철학 전통의 배경과 그 핵심이 되는 유교, 불교, 도가철학, 도교수행의 이론적 배경 및 무교의 체계적·이론적 천착을 위한 집중 훈련이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갖추어져야 한다. 그 고전적 문헌을 독파, 해석, 재구성하기 위한 예비적 어학 훈련, 즉 범어, 팔리어, 중국의 고전 한자, 한국 고어의 원전 강독 등을 동양철학 학부 과정 속에 필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양철학은 어디까지나 동시에 철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위의 서양철학 전공자들에게 전공 필수로 요구하는 몇몇 과목들, 예컨대 서양철학사를 제외한 논리학, 인식론, 윤리학 계통의 일반적 개괄 과목은 여전히 필수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동양철학 전공의 여러 분야를 세분하면 다음의 세 가지 무리로 나뉜다.

① 地域別·文化別 哲學의 여러 분야

한국의 전통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일본철학, 이슬람철학, 동서비교철학

② 主要 思潮別 여러 분야

유가철학, 불가철학, 도가철학, 제자백가철학, 근본불교철학, 소승불교철학, 대승불교철학, 선불교철학, 중국고대신유가철학, 성리학, 양명학, 고종학, 배단타철학, 노장철학, 한국실학, 한국유가철학, 한국불가철학, 한국도가철학, 한국근대철학사상

③ 西洋哲學의 분과에 따른 여러 분야

동양의 형이상학(예; 역경), 중국고대논리학, 인명론, 동양윤리학, 동양역사철학, 동양정치철

학, 동양예술철학 및 동양미학, 동양인식론

동양철학 전공 학부생은 반드시 다음의 6개 서양철학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즉 철학방법론, 철학적 세계관(형이상학), 철학적 가치관(윤리학), 비판적 사고(논리학), 진리와 인식(인식론), 서양철학사 등이다.

여기서 선택 과목을 별도로 나열하기보다 학년·학기별 안배를 고려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철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동양철학 전공)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비 고
1	1	동양의 지혜	교양선택*
1	2	유교와 근대화	교양선택* * 각 대학마다 1학년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 계통의 교양 과목을 제공해야 함
2	1	중국철학사 중국고전강독  동양정치철학 현대사회와 불교	전공필수 1 전공필수 2 (집중훈련)* *학점은 3으로 하되 1주 6시간 실험실습 선 택 교양선택
2	2	한국철학사 1 (고대·중세) 한국고전강독  인도철학사 불교경론강독	전공필수 3  전공필수 4 (집중훈련) 선 택 선 택
3	1	한국철학사 2 (근현대) 동양논리학 선진고전강독 동양의 형이상학 유가철학 불가철학 노장철학	전공필수 5  선 택 선 택 선 택 전공필수 6 전공필수 7 전공필수 8
3	2	한국유가철학 한국불가철학 신유가철학 노장철학강독 일본철학사	선 택 선 택 선 택 선 택 선 택



학년	학기	교 과 목 명	비 고
4	1	한국철학특강	원전연구선택
		인도철학특강	원전연구선택
		불교철학특강	원전연구선택
		한국유교철학강독	선택
		중국근현대철학	선택
		한국도교철학	선택
4	2	한국불교철학강독	선택
		일본철학강독	선택
		한국근현대철학특강	선택
		실학강독	선택
		배단타강독	선택
		비교철학 강독	선택

### (3) 哲學的 生活人을 위한 敎育課程

〈표 1〉의 필수 과목 중 철학사 시리즈를 선택으로 전환하고, 〈표 1〉 또는 〈표 2〉의 선택 과목 중 동·서양 철학 전문가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당한 부분을 제외시킨다.

그러나 논리적 기반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와 철학 방법론을 필수로 지정하고 철학 입문,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가치관 등도 필수로 수강케 한다. 수강 학점 부담은 부전공 학점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공 필수 18학점, 전공 선택 33학점(합계 51학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서양고대·중세철학, 서양근세철학, 현대유럽철학, 현대영미철학, 동양철학사, 한국철학사; 인식론, 실용주의, 과학철학, 심리철학(마음의 철학), 형이상학, 실존철학, 윤리학, 기업윤리, 생의 윤리, 환경윤리, 행위이론, 종교철학, 미학, 법철학, 역사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철학적 인간학, 사회사상사;

〈표 3〉 철학적 생활인을 위한 교육과정

학년	학점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1 학기	2 학기
1	3	전공필수	철학 입문	철학 방법론
	"	"	비판적 사고	
	"	"		
2	3	전공필수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	"		
3	3	전공필수	철학적 가치관	
4	0	전공필수	졸업 논문	졸업 논문
	0	"		

한국유가철학, 중국유가철학, 한국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 노장철학, 도가철학, 비교철학;

교육철학, 철학 교육론, 철학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어린이 철학, 자연과 인간, 문학과 철학, 예술과 철학, 문화와 철학, 과학과 형이상학, 언론과 철학, 정치와 철학, 현대사회와 철학, 변혁과 철학, 실천과 철학

### (4) 哲學 副專攻者를 위한 敎育課程

철학입문, 비판적 사고,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가치관을 필수로 수강하고, 그 외에 5과목(15학점)을 선택 수강하도록 하여 적어도 30학점을 수강하도록 한다.

### (5) 敎養哲學

철학입문, 비판적 사고, 진리와 인식, 철학적 세계관, 철학적 가치관, 기업윤리, 사회정의론, 사회철학, 경제철학, 철학적 인간학, 사회사상사, 문학과 철학, 예술과 철학, 종교와 철학, 문화와 철학, 과학과 철학, 언론과 철학, 정치와 철학, 기업과 철학, 현대사회와 철학, 변혁과 철학, 실천과 철학 등 現實性이 높은 과목들을 교양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開放한다. \*